

 질병관리청	보도 참고 자료				
배포일	2021. 12. 14. / (총 7 매)				
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	팀장	정통령	전화	043-719-7050	
	담당자	김영미		043-719-9357	
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	팀장	김주심	전화	043-719-9200	
	담당자	박진욱		043-719-9210	
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	팀장	박영준	전화	043-719-9218	
	담당자	이상은		043-719-7950	

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결정

◇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를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 및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TF를 개최하여 해외유입 관리 한시 조치 연장 결정

-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정은경 청장)는 12.14.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.
- 남아공,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, 국내 감염이 91명으로,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하였으나,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하였고, 다수 권역에서 교회 · 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.
- 이에 정부는 금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('21.12.17.~'22.1.6.)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.

- 이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,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,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한다.

① 입국제한 조치

- 방역강화국가 · 위험국가 · 격리면제 제외국가^{*}로 지정된 남아공등 11개국^{**}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(사전 PCR, 입국후 1일차, 입국후 5일차, 격리해제전)는 '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.

* (방역 강화국가) 비자, 항공편 제한 (위험국가) 10일간 시설 격리, (격리면제 제외국가) 예방접종자 격리

** 나미비아, 남아공, 모잠비크, 레소토, 말라위, 보츠와나, 에스와티니, 짐바브웨, 나이지리아, 가나, 잠비아

-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'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. 다만,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예정이다.

② 격리 강화

- 상기 입국제한 11개국 外 모든 국가 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'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.

-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· 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(사전 PCR, 입국후 1일차, 6~7일차 PCR)를 받아야 하고,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(사전 PCR, 입국후 1일차, 격리해제전 PCR)를 해야한다.

- 격리면제서 발급(장례식 참석, 공무 등에 한정) 최소화도 '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.
 - 다만, 싱가폴,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유지하되,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·보완한다.
-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·평가하고,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.

< 참고: 해외 주요국 조치 현황 >

-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(일본, 이스라엘(12.22일까지 연장), 모로코(12.31.까지 연장))
- 아프리카 국가 發 승객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중인 국가 63개국(12.13. 기준)

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,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<붙임> 1.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 후 현황
2. 오미크론 변이 국내외 위험도 평가

불임 1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 후 현황

입국 조치 강화 이후 해외 입국 및 격리 관련 현황

- (입국자 수) 입국제한 및 격리강화 조치가 전면 적용된(12.3일 0시~)
12월 2주 내국인 및 외국인 입국자 수 감소

구분	11월1주 (10.31~11.6)	11월2주 (11.7~11.13)	11월3주 (11.14~11.20)	11월4주 (11.21~11.27)	12월1주 (11.28~12.4)	12월2주 (12.5~12.11)
해외입국자	6,774	6,895	7,791	8,187	8,779	7,279
내국인	3,872	4,028	4,563	4,902	5,363	4,844
외국인	2,903	2,867	3,228	3,285	3,416	2,435
소계*	2,357	2,304	2,646	2,192	2,857	2,408
장기체류	1,450	1,319	1,459	1,528	1,657	1,495
단기체류	907	985	1,188	664	1,200	912

* 주간 일평균, 외국인 소계에서 단기 승무원 제외

- (국내예방접종완료 입국자) 격리면제 제도 한시 미적용으로 12월 2주
국내예방접종완료자 2,222명 모두 자가격리 중

11월1주 (10.31~11.6)	11월2주 (11.7~11.13)	11월3주 (11.14~11.20)	11월4주 (11.21~11.27)	12월1주 (11.28~12.4)	12월2주 (12.5~12.11)
1,593	1,782	2,242	2,456	2,873	2,222

* 주간 일평균

- (격리면제서 발급) 12월 2주 일평균 격리면제서 발급건수는 277건
으로 조치가 강화되기 전에 비해 5.3배 감소

	11월1주 (10.31~11.6)	11월2주 (11.7~11.13)	11월3주 (11.14~11.20)	11월4주 (11.21~11.27)	12월1주 (11.28~12.4)	12월2주 (12.5~12.11)
소계	1,725	1,749	1,776	1,925	1,458	277
중요사업	257	309.6	299.6	262.1	251	125
학술공익	38.3	26.6	22.6	52.3	46.7	5
인도적(장례)	1,356	1379	1410	1564	1,067	78
공무	43.4	7.7	11.6	4.4	28	17
기타	29.9	26	32.6	42.2	65.9	52

* 주간 일평균

○ (해외유입 확진자 현황) 총 입국자 대비 검사양성을 0.5% 이내유지

- 입국자 총 50,954명 중 확진자 200명(0.4%, 내국인 119/외국인 81) 발생
- 관리대상국가* 29개국이 68.5%(137명, 외국인 54명) 차지

* (방역 강화국) 총 35명(외국인 15) : 필리핀8(6), 우즈베키스탄2(2), 영국6(0), 키르기즈스탄1(1), 남아공 10(1), 모잠비크2(0), 말라위1(0), 나이지리아5(5)

* (추이감시국) 총 102명(외국인 39) : 미국 42(8), 러시아 9(7), 프랑스 14(1), 인도 7(6), 방글라데시1(0), 베트남 8(5), 인도네시아 2(1), 몽골 5(5), 터키 7(0), 캄보디아 7(6)

구 분	11월1주 (10.31~11.6)	11월2주 (11.7~11.13)	11월3주 (11.14~11.20)	11월4주 (11.21~11.27)	12월1주 (11.28~12.4)	12월2주 (12.5~12.11)
입국자	41,020	41,444	46,509	51,887	53,977	50,954
확진자	계	141	130	136	149	206
	내국인	59	64	72	79	119
	외국인	82	66	64	70	81
검사양성율(%)	0.3%	0.3%	0.3%	0.3%	0.4%	0.4%

○ (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 현황) 총 274명(미접종자 109명, 접종완료자 165명)

* 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(예방접종완료) 입국자 25% 전후 유지

구분	계 (7.1.~12.11.)	11월2주 (11.7~11.13)	11월3주 (11.14~11.20)	11월4주 (11.21~11.27)	12월1주 (11.28~12.4.)
격리면제 입국자	계	232,151	12,241	12,434	13,476
	예방접종완 료자	208,173	11,558	11,664	12,663
	기타	23,978	683	770	813
격리면제 입국 후 확진자	계	286	8	8	7
	양성율(%)	0.12%	0.07%	0.06%	0.05%
	예방접종완 료자	175	6	8	6
	양성율(%)	0.08%	0.05%	0.05%	0.05%
	기타	111	2	0	1
	양성율(%)	0.46%	0.29%	0%	0.12%

불임 2 오미크론 변이 국내외 위험도 평가

① 해외 위험도 평가

○ 전파력

- (영국) 12.8일 568건 확진, doubling까지 2.5~3일 소요될 수 있음 시사
 - * SGT(S-gene Targeting failure) 사례는 0.15%(11.21)에서 3.3%(12.5)로 증가
- (EU) 빠른 확산속도로 유럽의 새로운 지배종이 될 가능성(12.7)
- (홍콩)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각각의 방에서만 머무른 접종완료자에서 오미크론 전파사례가 보고, 공기전파 가능성 제기(12.5)

○ 중증도

- (남아공) 초기분석 결과 대부분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라는 보고, 다만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평가는 부족
- 5세 이하 인구에서 매우 높은 입원율이 관찰*
 - * 낮은연령대에서의 백신접종이 낮은 것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의견, 최근 2주간 코로나 관련 소아병동 입원자 34명중 사망자는 미보고
- (영국) 확진자 중 10명 입원치료, 1명 사망(12.13.)

② 오미크론 관련 백신 효과

- (영국) 3차 접종 이후 델타 대비 백신 효과보다 낮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는 70~75% 확인
 - * '21.11.27~12.6간 코로나-19 증상자(델타 9823명, 오미크론 115명) 대상 백신 접종률과 PCR 검사로 백신 효과 조사
- (남아공) 오미크론 변이는 초기주 바이러스에 비해 중화능이 41배 감소
- (독일) 델타 변이주에 비해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주 중화능이 감소
- (스웨덴) 대부분 검체는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초기주 대비 중화능 감소 배수는 1~23배

③ 국내 위험도 평가

- (전파력) 평균 잠복기 4.2일, 평균 세대기 2.8~3.4일로*, 델타변이의 세대기 2.9~6.3일보다 짧아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
 - * 인천 교회 관련 사례 29명 분석 결과
 -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감염경로는 국외감염이 18.7%, 국내에서는 가정 36.6%, 교회 21.1%, 보육시설 13%를 차지, 지역사회 전파 상황
- (중증도) 중증도 관련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진단 시 무증상 24.4%* 현재까지 위중증, 사망자 부재
 - * 국내 확진자 분석, 미접종자 접종완료군 무증상 비율도 유사
 - 남아공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델타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음
- (백신효과) 상대적으로 감소하나 중증화, 사망예방효과는 유지될 것으로 추정
- (위험도) 델타변이 대비 위험이 낮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중증도관련 추가정보가 필요
 - * 델타변이 대비 전파력↑, 백신효과↓, 중증도↓(추정)